

구 이와사키 저택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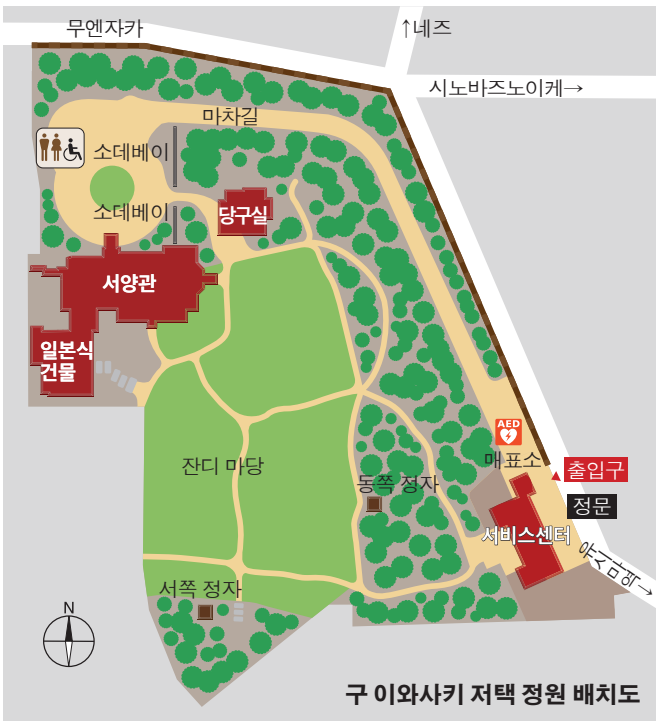
시간의 바람이 부는 정원



기념 스탬프 날인란

중요 문화재 구 이와사키 저택 정원

- 개원 년월일
2001년 10월 1일
- 개원 면적
20,709.25㎡
- 개원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따라 개원 시간이 연장될 경우가 있습니다.
- 휴원일
연말연시(12월 29일 ~ 1월 1일)
- 무료공개일
미도리(녹색)의 날(5월 4일)
도쿄도민의 날(10월 1일)
- 정원 가이드(무료, 일본어)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실시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의처】
구 이와사키테이 정원 서비스센터
전화 03-3823-8340
우편번호 110-0008 東京都豊島区池之端
(다이토구 이케노하타) 1-3-45



구 이와사키 저택 정원 배치도

입 장 료	개인	단체 (20명 이상)	연간 패스포트 (구 이와사키테이 정원)	연간 패스포트 (정원 9곳 공통)
	일반	400엔	320엔	1,600엔
65세 이상	200엔	160엔	800엔	2,000엔
무료	초등학생 이하(보호자 필수) 및 중학생(도내 거주 또는 재학)			

문화재 정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도쿄도립 공원은 에도, 메이지, 다이쇼 시대부터 내려온 역사·문화·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며 모두 국가와 도쿄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진과 전쟁, 도시화 등을 거치면서도 보존되어 온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 소중한 존재가 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후세까지 계승되도록 여러분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하고자 합니다.

【부탁말씀】

- 애원동물 동반, 정원에서 동식을 채집, 매트 사용, 주류 반입은 삼가해 주십시오.
- 창호, 벽지, 기둥 등에는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내 견학 시에는 양말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사진 촬영, 사생은 건물이나 청경 보호를 위해 거절하는 장소나 시간대가 있습니다.
- 문화재의 보존 및 수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원 내는 전면 금연입니다. 흡연소는 없습니다.

도쿄도립 문화재 정원 9곳

- 하마리큐 온시 정원
- 구 시바리큐 온시 정원
-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정원
- 리쿠기엔 정원
- 구 이와사키 저택 정원
- 무코지마 백화원
- 기요스미 정원
- 구 후루카와 정원
- 도노가야토 정원



【오시는 길】
 <전철>◎도쿄메트로 지요다선 '유시마' 하차,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도쿄메트로 긴자선 '우에노히로코지'에서 하차, 도보 10분
 ◎도에이 오에도선 '우에노오카치마치'에서 하차, 도보 10분
 ◎JR야마노테선·게이힌토호쿠선 '오카치마치'에서 하차, 도보 15분 *주차장은 없습니다.

1896년, 일본의 새로운 건축 문화가 시작되었다.

규이와사키테이 정원은 1896년에 이와사키 야타로의 장남으로 미쓰비시의 제3대 사장였던 이와사키 히사야의 본택으로서 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약 1만5,000평의 부지에 20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서양관, 당구실, 일본식 건물 큰 방의 3동입니다.

2차대전 후에 GHQ에 의해 접수되었는데, 일본에 반환된 후 1953년에 국유재산이 되고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61년에 서양관과 당구실이 '규이와사키가 주택' (문화재로서의 명칭)으로서 나라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1969년에 일본식 건물의 큰 방과 서양관 동쪽 옆에 있는 '소데베이 (건물 옆의 낮은 담)'가, 1999년에 벽돌로 된 담을 포함한 부지 전체와 실측도가 각각 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서양관

쥬사이야 콘도르의 설계로 189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17세기의 영국 차코비안 양식의 훌륭한 장식물을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영국·르네상스 양식이나 이슬람 풍 모티프 등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서양관 남측은 기둥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베란다이며, 1층 기둥은 토스 카나식, 2층 기둥은 이오니아식 장식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1층 베란다에는 영국의 민트사가 만든 타일이 빈틈없이 깔려져 있으며, 2층에는 귀중한 금당혁지(金唐革紙)로 된 벽지가 붙여진 객실도 있습니다. 이와사키 히사야가 유학했던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컨트리하우스의 이미지도 채용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서있는 일본식 건물과의 절묘한 밸런스는 세계 주택사에 있어서도 흔치 않은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번씩 가졌던 이와사키가의 모임이나, 외국인과 귀빈을 초대하는 파티 등 개인적인 영빈관으로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내부 곳곳에서 차코비안 양식의 디자인을 볼 수 있다.

당구실

콘도르가 설계한 당구실은 서양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별관으로서 지어졌습니다. 차코비안 양식의 서양관과는 달리, 당시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스위스의 산장 풍으로 지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목조건물이며 아제쿠라 풍의 벽, 문양이 새겨진 기둥, 처마를 길게 내민 대지붕 등, 미국의 목조 고딕 양식의 흐름을 이어받은 디자인입니다. 서양관과는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귀중한 금당혁지로 된 벽지가 복원되고 붙여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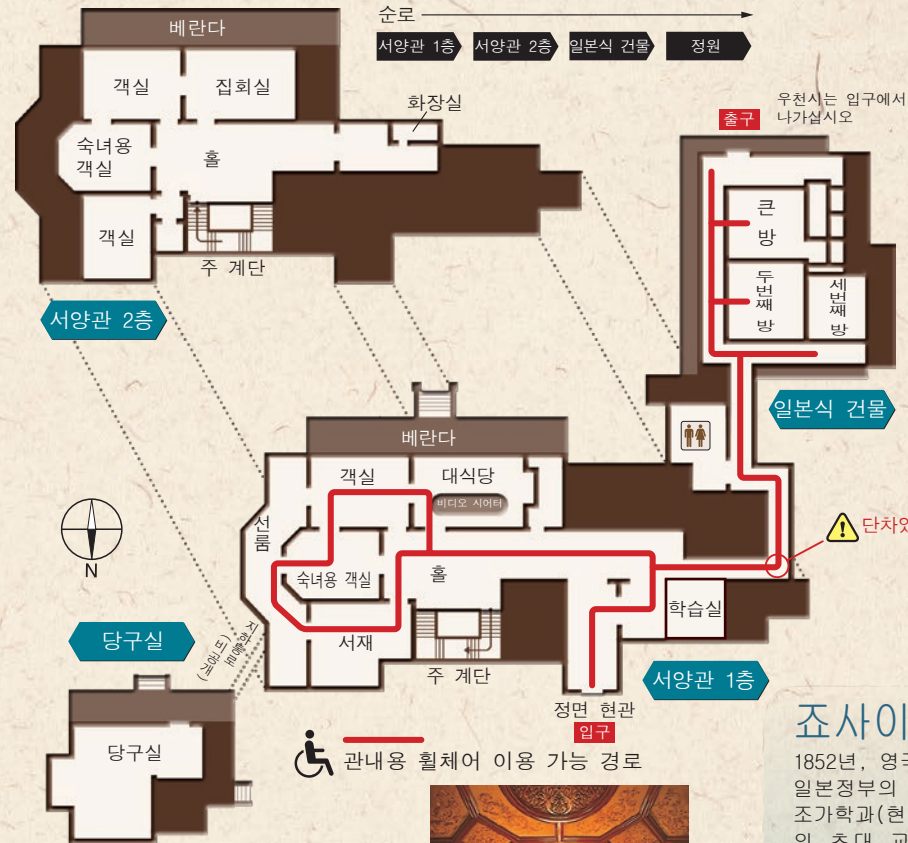


2층 객실의 금당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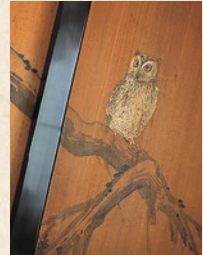
정원

에도 시대에는 에치고타카다 지방의 사카키바라씨, 그리고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마이즈루 지방의 마키노씨의 저택이었습니다. 당시의 정원은 영주 정원의 형식을 일부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양식과 마찬가지로 화양병치식(和洋併置式)으로 지어져 '잔디 마당'을 갖춘 근대정원 초기의 모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원의 모습은 에도 시대의 석비, 일본식 건물 앞의 샘물화분, 정원석, 아름다운 후피향나무 등을 통해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식과 서양식을 함께 갖춘 저택 형식은 이후의 일본 저택 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식 건물

서양관과 결합된 일본식 건물은 서원 양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 당시에는 건평이 550평에 달했고, 서양관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지금은 서양관과 동일하게 관혼상제 등에 사용된 큰 방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도코노마'와 맹장지에는 하시모토 가호가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일본화 등 장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와사키가 사람들이 생활했던 거주 공간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남쪽에 주인과 부인의 방, 아이들의 방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사용인의 방, 부엌, 사무실, 직원 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도 당시의 그림이 남아 있다.



건축 부재 하나 하나에 이제는 입수하기 어려운 목재가 사용되고 있다.

쥬사이야 콘도르 Josiah Conder

1852년, 영국 런던에서 출생. 1877년에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방일. 고부대학교 조교학과(현 도쿄대학 공학부 건축학과)의 초대 교수에 취임하여 일본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서구식 건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자로서는 도쿄역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다쓰노 긴고, 아카사카 별궁을 설계한 가타야마 토쿠마 등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로쿠메이관, 우에노 박물관, 니콜라이 성당 등 수많은 서양식 건축물을 설계했고 후일 일본 최초로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도쿄 제국대학 명예교수, (일본)건축학회 명예회장·명예회원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에 일본에서 영면. 건축가 콘도르는 가와나베 교사이로부터 일본화를 배우고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는 등 평생 일본을 사랑했습니다.



1층 동쪽 객실의 천정에는 일본식으로 자수된 실크가 붙여져 있습니다.